

1 개요

구실할망본풀이는 나주 김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김동지는 서울 진상을 갔다가 버려진 아기씨를 몰래 데려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아기씨가 물질하여 얻은 전복 구슬을 진상하여 베풀을 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2 내용

조천읍 신촌리에 사는 김동지가 제주 특산물을 진상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 일을 마치고 서대문 밖에 이르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그때 어디선가 계집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여기고 찾아보니 논둑 아래서 아기씨가 혼자 울고 있었다.

아기씨는 자신은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 눈 밖에 나서 버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김동지는 아기씨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육지와 제주 왕래가 금지된 터라 아기씨를 제주로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몰래 아기씨를 도포자락에 숨기고 배에 올라 배 밑창에 숨겼다. 배가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자 밤이 들기를 기다려 아기씨를 몰래 집으로 데려다가 다락에 숨겨 길렀다.

아기씨가 자라 열여덟이 되자 사람들이 밭 밟는 소리, 물질하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물질하기를 원하였다. 뜻대로 하게 두었더니 스스로 물질을 익혀 곧 무리 가운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상군 잠수가 되었다. 아기씨는 전복을 많이 따내곤 하였는데 전복마다 진주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동지도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된 뒤에 아기씨의 뜻에 따라 비로소 둘이 혼인을 하였다.

아기씨는 자신이 따낸 진주를 임금에게 진상하자고 하였다. 그대로 하였더니 임금이 상과 벼슬을 내려주었다. 김동지와 아기씨는 딸만 아홉을 낳았다. 아기씨는 딸들을 애타게 낳고 제사, 명절 때와 굿을 할 때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악으로 놀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슬할망은 나주 김씨택의 딸 자손을 따라 전승되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는 조상신이 되었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에 속하는 전승이다. 나주 김씨 집안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조상신본풀이는 대개 주인공이 원혼이 되어 제향을 받는데 구슬할망은 행복한 삶을 마친 뒤에 조상신으로 모셔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선묘설화, 작제건설화 등과 동계의 전승으로 볼 수 있어서 서사문학사의 흐름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④ 핵심어

신촌리, 나주 김씨, 조상신본풀이, 김동지, 잠수, 물질, 전복, 진주, 아기씨

⑤ 원전 서지사항

구슬할망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